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살림살이가 공부이고 불교입니다

15면에서 계속

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자차 나를 믿어야지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 장난감도 마구니의 소굴과 같느니라" 라고 하셨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알아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그냥 한테 모인 거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죠. 길이 뚫릴 수가 있나. 과거·현재·미래 삼세가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길이 막히죠. 중간에 가서.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바로 교제인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 나가게 하는 그 근본을 잊지 않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어느 때라도 좋으니 조용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놓는 것' 잘 되지 않습니다

문: 큰스님의 한마음 요전을 읽고 이제 불교에 첫발을 내딛는 초심자입니다. 제가 한마음 요전을 읽다보니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관하여, 놓아라 하셨는데 제가 이해해서 그런지 그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공에 믿고 놓으려고 해도 잘되지 않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바쁘신데 이런 하찮은 질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항상 얘기하기를 모든 건 내면의 영광로에다 맡겨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게 마음의 영광로에다 되돌려 놓는다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생신이 돼서 나가는 거는 정한 이치입니다. 인과로 인한 유전성이라든가 업보라든가 세균성, 영계성 그것이 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은 거기에서 되돌려 놓아야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앞서의 입력된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현상에 생각하는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모두가, 어디서 잘못됐느냐 어디서 잘못됐느냐 하고들 아단들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한 군데서, 즉 말하자면 가던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허공을 아무리 허우적거리려도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다. 단지 떨어진 그 자리에서만이 그 땅을 잡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에 되돌려놓아라 하는 것은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굳어진 그 생각의 풍자, 습의 덩어리, 업의 무게를 툭툭툭툭 녹여나갈 수 있는 그 한 군데에서만 나에게 담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목이 가늘고 아픉니다

문: 저는 48세의 주부입니다. 10여년 동안 식단을 거의 혼자 운영하다시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손목이 발목이 가늘고, 그래서 힘이 겨운 것도 있지만 약해 훨씬 자궁안 물혹 수술 하기 전부터 양 손목 손가락 마디마디가 주기적으로 아팠습니다. 제때에 병원에 가지않고 얼마정도 지나서 한의원에 가서 진단받고 침을 맞았습다. 한의원에서 권하는 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옳은지요? 주인공 근본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믿지만 열려가 됩니다. 제가 유일한 수입원이며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진정으로 믿던 소금장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이고 다니면서 팔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미처서 그냥 막 바깥으로 뛰어 나가고, 또 자기는 그 무거운 소금을 이고 다니다 보니깐 자궁암이 걸려서 그렇게 애쓰고 그러는데도 집도 없이 사글세로 살면

서 자식들은 사남매를 키워야 하는 아주 급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정성을 드린 줄 아십니까? 소금을 이고 장사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짚에 와서 소금 한 공기 먼저 떠 놓고, 시간이 없는데도 매일 매일 떠 놓고 갔습니다. 그러다 저를 만나게 되면 "스님, 스님! 저 이 자궁암 좀 낫게 해 주시고 당장 애들하고 살기가 힘이 드니, 정신없는 남편도 낫게 해 주시고, 이렇게 영지가 아파도 지금 끌고 갑니다. 하혈을 합니다." 이러면서... 세상에 얼굴은 백작장 같은데 장사를 하느라고 울면서 그렇게 갈 때 나눈요, 마음이 심치하구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그 마음이 아픈 것이 그만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궁암도 저절로 낫게 되고 남편도 차츰차츰 나아서 10년동안이나 못 하던 철공일 하던 거를 그냥 하게 됐고, 또 그 보살은 소금을 팔던 걸 놓고 김밥을 해서 어느 회사에 납품하게 됐습니다. 아담을 몇 두고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부자가 돼서요, 큰 집에 살고 아들들을 다 대학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든지 내가 잘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잘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된 겁니다.

오교 강이 없는 그 빠저리고 눈물어린 그 마음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가련한 자기 그 의식이, 과거로부터 자기를 끌고 다니던 그 불성 자체 그 마음을 믿고, 자기 과거에 살던 의식 주인공을, 현재의식이 믿는 것이지요. 주인공이라 칭한 것은 고정점이 없이 찰나로 돌아가면서, 우주의 근본과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 거기에 직결되어 있으니까 모든 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그렇게 사신다면은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안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된다 하면은, '당신밖에 즐겁게 해줄 수 없어' 하고선 믿고 놓고, 좋게 됐다는 생각이 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감사하게 놓고, 필요에 따라서 '당신밖에 밤을 낮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당신밖에 우리 가정은 이



그림·최주현

을, 많은 마음을 내고 고정점이 없이 행을 하는 그러한 쪽으로 비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생사는 둘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의 본성과 마음 내는 이 자체가 어떻게 들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고 고정되지 않게 수많은 마음을 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풀이 아닌 까닭에 우린 몸도 있고 몸을 움직여기도 하고 상대성 원리도 돌아가고 이렇게 무진한 법이 우리들 살아 나가기에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에 경에 다른 방편으로 말을 했다

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저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저울질을 해서 머리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놓아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풀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도 또 거기다가 맡겨 놓되, 해서 좋은 일은 하고, 해서 나쁜 일은 하지 마라 이거야. 좋지 않은 일은, '아하! 그러면 왜 그런 것이 일어나나. 나의 사람 필멸이 만들어기 위해서 테스트 해 보는 것이로구나'

마음의 문 활짝 열려면...

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걸림이 없으려면 어떤 수행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답: 물질만 알지 말고 되는 것만 알지 말고 전자에 살던 것으로 인해서 업식으로 동화된 인과, 유전, 업보가 동체 가지고 지금 현실에 이렇게 술술 풀려나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는데 그 마음 하나 방생한다면, 방생을 받으면 정말이지 그 업이 다 녹아져서 세세생생에 걸림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질 겁니다.

영가와 교류하는 사람있는데...

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도반 중 어떤 사람은 영가들이 자주 보이고 영가와 대화도 나누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부를 아주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가가 들어 몹시 괴로워하던 중선원과 연결이 되어 마음공부를 하고 이전 편찮고 합니다. 과연 영가를 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인지, 아직 선원에서 마음공부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영가가 들어와 괴롭히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영가들과 계속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영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는데 그런 공부 가 뎡지 저는 진짜 마음공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의 도움 말씀 청하옵나이다.

답: 공부를 하다보면, 공부라는 게 무슨 별다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와서 이 세상에 사는 게 공부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면 불(佛)이요, 나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教)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별다른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빼놓고 불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믿지 마시고 간편하게 해서 머리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놓아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풀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도 또 거기다가 맡겨 놓되, 해서 좋은 일은 하고, 해서 나쁜 일은 하지 마라 이거야. 좋지 않은 일은, '아하! 그러면 왜 그런 것이 일어나나. 나의 사람 필멸이 만들어기 위해서 테스트 해 보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보면은 안으로 들어서 바깥으로 내서 믿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서 믿고 거기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맡기고, 잘됐으면 감사하

물질계거든요. 그렇게 바깥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영계가 들려서 아난인 사람도 있고, 상기가 돼서 귀로 들려서 아난인 사람도 있고, 몸이 떨어져 아난인 사람도 있고, 몸을 부지를 못하고 그냥 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식들은 이리저리 떨어지게 되는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복으로 믿으면서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무슨 부처님, 무슨 부처님을 부르면서 바깥으로 끄달리는 사람들이 특히 영계성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이집 저집, 떠다니면서 기웃거리는 그런 영령들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영령이 들어서지도 모르고 그게 자기 몸에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은 그냥 아주 정신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되는 것도 위험한데 가정이 다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좋다, 미다 곱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를 염두에 두고서 항상 꼬집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런 거 그냥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면은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말이 모두 없어져서, 말을 하면 구업(口業)이 되고, 마음으로 지으면 의업(意業)이 돼서 입력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층 더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하면 안되죠. 왜냐하면은 바깥에서 닥치는 거 미운 거 고운 거를 미다 곱다 하질 말고 안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의식에서 그러는 거니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말고도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래야만이 모든 업이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다 자기 관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 해주거나 어느 날부터 그냥 술을 먹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가려구요.

그 마음이 그렇게 되고, 그냥 약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악은 모아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께서 극히 조심해 해야 하고, 남을 미워하거나, 또 자식들도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약한 마음이 녹아지기를 적극적으로 관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승투림 없이는 겁니다. 길고 짧고 더디고 좀 빠르고는 있을지언정 꼭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녹음기에 녹음을 했더니 자동 녹음이 됐는데, 자동으로 또 거기다 입력을 하면 그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고 항상 말해드렸죠. 그러니까 잘라도 아니 되고, 끊어도 아니 됩니다. 업을 끊으려고 했잖아 칼로 물베기죠. 그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서 없애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소홀히 들지 마십시오. 첫째에 이 공부하는 데에 도로아미타불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잘 봤다. 못됐다 또는 옳다. 그러다 이런 말을 남한테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이 그 업식이 녹고, 그 수없는 광년을 거쳐면서 나온 업식이 다 녹아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海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얻는다 이 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습을 때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모습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철 사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다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다유에 또 나와서 또 교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해서 우리가 요다유 생애에 또 나와서 교생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에서도 자기 위로는 부모와 아래로는 자식들과도 연관성이 염두에 항상 같이 깨어 있듯이 그렇게 연관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 일어난 자리에 되놓아야 문제해결 밖으로 끄달리고 자기세우면 공부 못해

풀어갈 수 없어' 하고 거기 놓을 때 바로 직결해서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질량'이 무슨 뜻인지요

문: 큰스님 법문에 "한마음 속에서 질량이 나오면 해어질 수 없이 광대 무변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주 질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질량이 무엇인지요?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답: 물질과적이 아무리 발전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음으로써 묶어진 거지 그냥 공중에서 '파악이 이런 거다'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모두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떠한 물건이 나왔는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걸 끌어가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봤으면 자기가 굴러야지, 왜 그 물질의 굴림을 받아만 되느냐는 얘깁니다. "생사(生死)가 돌이 아니다" 하는 것도, 에너지 핵과 질량이 돌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게 틀렸습니까, 어디? 그렇게 표현해 보면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생사가 돌이 아니다' 하는 뜻을 우리 몸으로서 실감을 하고 체험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말들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생활이 그대로 과학이고 우리 한생각, 나를 낳기 이전 그 본성이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우리가 마음

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명주를 실크라 한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시겠습니까?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지 명주라는 근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요즘 사람이 그 이름을 모를 때는 실크라고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크라고 불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편이 달라지는 거 같지만 건 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시대가 바뀌고 인간의 머리도 바뀌고 자꾸자꾸 계발이 되어가니 우리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마음, 이 마음을 깨닫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옳고 그름 판단하는 기준

문: 주인공 자리에서 생각이 나올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답: 여러분이 처음에는 주인공에 놓는 공부를, 무조건 믿고 놓고 물려서 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프든지 어찌 없이 생겼어도 거기서부터는 해결 못한다고 거기다 맡겨놓고 가는 겁니다. 한발짝도 우리가 그냥 떼는 게 없어요. 생각 하나도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 무엇이든지 믿고 놓고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을까 저 것이 옳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자기 주인

하고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참 심국이 웃을 정도가 돼야죠.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그냥 듣고는 남이 호박 따르라고 호박 따고, 호박이 따르라고 호박 따고, 도둑질 하러라고 도둑질 하고, 나가려라고 나가고, 들어오려라고 들어오고 이게 무슨 아난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끌어 주는 스승이 필요하디 이겁니다. 자기가 걸어보지 않고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이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필요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 놓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신다면 나도 거기에 따라 주는 겁니다. 뭐 말로는 높은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말을 이렇게 해드리는 나나 다 도둑놈이 되듯이, 그렇게 말을 해주었으니까 여러분이 전부 잘못되면 안되니까 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 마음공부는 잘못될 리가 없어요. 왜? 자기 마음에다 맡기기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어요. 잘못해서 형설수설 하는 거를 거기서 나오느니라 하고 맡겨 놓으면 그 병자들이 다 나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못해서 더디지, 그냥 잠깐 그랬던 사람이 금방 그냥 괜찮아지죠. 그러니 제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났다고 날뛰고 아무리 권세가 좋고 돈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극치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새 벌의 피조, 아무것도 아녜요.